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 모범 부부 6쌍 표창

무주군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행복한 가족문화 정착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 부부 6쌍을 선정·시상했다. 모범 부부 표창은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부부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무주읍 신운주·이예순 씨 부부(50년), 무풍면 최우립·김길순 씨 부부(48년), 실천면 이지철·이정남 씨 부부(51년), 적상면 윤병섭·백종화 씨 부부(50년), 안성면 황주봉·유경남 씨 부부(53년), 부남면 황의복·이윤심 씨 부부(48년) 등 6쌍이 수상했다.

무풍면의 최우립·김길순 부부는 "결혼해서 50년 가까이 살다 보니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감사할 일, 기쁜 순간,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함께 걸어 온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오늘의 영광을 안게 해준 서로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직원협의회, 지역 소외 이웃에 쌀 전달

전북대학교 직원협의회(회장 송완상)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행사로 전주 덕진노인복지관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직원협의회가 마련한 500Kg의 쌀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송완상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따뜻한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전북대 직원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몽골서 해외문화봉사 진행

남원시가족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몽골 하르하링 제2학교와 날라흐 제103학교에서 해외문화봉사를 진행했다.

남원시가족센터와 사단법인 한울안운동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반나절 이상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는 하르하링과 날라흐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봉사단은 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220명의 학생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지사협, 들불식당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명장 노환순, 민간위원장 김영근)는 지난 20일, 착한나눔 정기 기부예 동참 들불식당(대표 최윤실)에 현판을 전달했다.

최윤실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실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환순 주천면장은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부대 녹지, 전투력의 또 하나의 축”

안득수 명예교수, 한반도군전략녹지연구원 초대 이사장 취임… 녹색 국방 시대 선언

대한민국 군의 전투력 향상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축을 결합한 새로운 국방 전략이 국내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사단법인 한반도군전략녹지연구원이 5월 19일 공식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안득수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상재 전 육군공병실장, 김상술 전 육군 공병학교장, 박찬권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정성석 전 전북대 부총장 양병우 전 농생대 학장 등 군·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녹색 국방을 향한 비전과 방향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안득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군부대의 녹지공간은 단순한 조경 차원을 넘어, 장병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자산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며 “녹지 혁신을 통해 국방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병영식 개선 생활관 현대화 등 장병 복지의 많은 부분이 진전되었지만 군부대 옥외 환경은 여전히 40년 전 모습에 머물러 있다”며 “녹지 공간이 야말로 장병들의 일상 회복과 작전 효율성, 그리고 군의 탄소중립 전략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반도군전략녹지연구원은 향후 장병의 스트레스 해소와 전투 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치유형 녹지 조성, 작전 효율성과 방어성을 고려한 전략적 녹지 배치, 훼손지의 생태복원과 유류지의 효율적 활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연구·실행할 계획이다.

안득수 초대 이사장은 “녹지는 더 이상 부대 외곽의 비활용 공간이 아니라, 병영문화와 작전환경을 동시에 바꾸는 능동적 국방 자산”이라며, “우리 연구원이 국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전문 싱크탱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앞으로 정책 제안, 전문 인력 양성,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군부대 녹지 환경의 전략적 개선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안보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김제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협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진순)과 21일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인 김제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 자료·정보의 상호 공유, 마스터플랜 수립 등 협력 업무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협약 체결이 있기까지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실무진이 10여 차례 만나 공모사업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적정 부지를 모색한 결과, 금구초등학교 주차장 부지를 사업예정지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대상 부지에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구 지역 학생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보건소, 전북자치도 적극 행정 최우수상

남원시는 시 보건소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차 심무심사와 2차 도민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최우수 사례 2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야간 소아진료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지점 내 인구 감소지역 특례 기준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지점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문제 해결의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지방의료원(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오는 6월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진안군은 21일, 2025년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재난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군청 군수실에서 진행했으며, 진안군을 대표해 진춘성 군수가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한규 사무처장, 진안지구협의회 김경숙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함께했다.

진안군은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꾸준히 기탁 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인도주의 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진춘성 군수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적십자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농협익산시지부, 푸른익산 만들기에 1000만원 기탁

익산시는 '농협익산시지부'가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푸른익산만들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협익산시지부는 이번 나무심기 동참뿐만 아니라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장정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현용 농협익산시지부장은 “녹색정원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의 푸른익산만들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진현용 익산시장은 “바람직한 저감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녹색정원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계화회관 대표, 부안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군 행안부에 위치한 백합죽 맛집 계화회관(대표 이화자·최국서)은 지난 20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계화회관은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 왔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누적 기부액이 2,200여만 원에 이른다.

이화자·최국서 대표는 “장학금을 기부하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낀다며, “장학금 기부가 내 스스로에 대한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며 소탈한 웃음을 지었다.

어려운 시절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화자·최국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하길 바라며 지역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을 약속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블랑헤어 김초희 대표, 부안군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0일 부안을 번영로에서 '블랑헤어'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초희 대표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초희 대표는 부안여고를 졸업한 후 대전에서 미용사로 활동하다 2023년 9월 아버지 김문형씨가 거주 중인 고향 부안에 터를 잡았다.

현재 운영 중인 '블랑헤어'는 고객 만족도가 높아, 업체 소개 홈페이지에 300여 건의 방문 후기가 등록될 정도로 지역 내에서 성업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임실군, 신충식예수병원 원장에 후원자 감사패 전달

임실군이 20일 소외계층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 전주예수병원 신충식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최정삼금 성악가들의 특별공연인 '순둥순둥 신춘음악회'로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이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티켓 100장(8000원 상당)을 기부했다.

예수병원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의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노약자·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 완산청소년센터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5기와 함께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복록 튀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북은행 브랜드를 홍보하는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지역 사랑 실천이라는 따뜻한 행보의 일환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 날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및 완산청소년센터 관계자 약 30여명은 오랜 세월로 인해 어둡고 퇴색된 담벼락을 청소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벽화그리기 봉사 활동에 함께했다.

/오상근 기자